*영어어문교육* 9권 특별호 2003년 가을

# 휘트먼 시의 민주주의 전망*

양 현 철
(나사렛대학교)

Yang, Hyun-Chul (2003). Democratic vistas in Walt Whitman's poetr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Special Edition)*, 167-184.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Walt Whitman developed the theme and structure of *Leaves of Grass* with his ideal of democratic vistas. Whitman established his identity as an inspired poet, having faith in the divinity of man based on transcendental belief. After being awakened to the transcendental truth, he practiced his own common world view—his democratic vistas. Whitman searched for the unity with nature and identified his self with "common man and his nation." The poetry expresses "cosmological and national ideology" dedicated to the creation of an ideal nation united in eternal freedom and peace. By portraying common cosmic and national theme in terms of his individual personality, he brought various paradoxical and controversial ideas into one thing, namely "democracy", fusing diversity into unity. As in the symbol of the grass, there is a unity in variety reflected by democracy in a cosmological and political compound. With the form of free verse, he could express his liberal unrestrained and mystical thoughts of democracy. This new form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poet's strong consciousness of the need for modernization in his country. He willingly assumed "the role of prophet and public voice for American democrat" with the rolling catalogues and I-persona which formed a sense of the common man and common things of America. Whitman pioneered a democrat literature with simple and dynamic tone and style. He successively pursued the democratic vistas in his *Leaves of Grass*.

**[transcendental belief/cosmological and national ideology/democratic vistas, 초월주의적 신념/우주와 국가 이념/민주주의적 전리]**

---

* "이 논문은 2003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Ⅰ. 서 론

휘트먼(Walt Whitman)(1819-1892)은 문학적으로 19세기 미국의 르네상스에 바탕을 두었고, 사상적으로는 인간성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과 관심을 보이던 미국 민주주의와 초월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휘트먼 시의 본질적 생성은 바로 이 두 이념에서 비롯되어 전개된 것이다. 그의 주요사상은 1840년대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활력있는 국민 문학운동으로서 에머슨(Emerson)과 소로우(Thoreau)등에 의해 일어난 초월주의에서 비롯된다. 초월주의는 사물, 자연, 우주에의 직관과 형이상학적 인식의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문예부흥에서 기인한다. 휘트먼의 민주주의 정신과 시학 원리는 바로 이 뉴잉글랜드 초월주의가 발전되어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휘트먼은 자신의 초월적 사상에 영향을 준 유럽의 형이상학적 철학, 특히 칸트(Kant)의 선험적 관념론에 심취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한 동양의 고전 및 모든 신비주의적 종교사상을 받아들이고 우주와의 영적 교감을 체험하여 그러한 신비적 경험을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재현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휘트먼의 사상은 서구의 합리주의적 사상에 동양의 유교, 불교, 힌두교, 도교를 통합한 절충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휘트먼의 유일한 시집인 『풀잎』(*Leaves of Grass*)은 원래 1855년 36세 때 초판이 나왔는데, 이 초판은 95페이지 밖에 되지 않고 저자의 이름도 없었으며, 그의 사진과 단지 시 내용 중에 이름만 실려 있었다. 그는 이 초판을 1891-92년에 마지막 판인 제 9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의 내용을 수정, 편집하고 새로운 시를 첨가하여 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그래서 제 9판에는 총 389편의 시가 실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의 시가 완성되어 나간 결과이다. 그러나 『풀잎』에 실린 시들은 전체를 단일한 시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대표작품인 「나 자신의 노래」("Song of Myself")는 시인 자신의 노래라 할 수 있다. 그가 이 작품에 대하여 스스로 "이것을 만지는 자는 사람을 만지는 것이다"[1]라고 말했듯이, 그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인의 자아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자아가 아니라 인간 평등을 부르짖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자아이다. 그가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 내가 취하는 것은 그대도 취하리라 / 내게 속한 모든 것은 그대에게도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LG* p. 23)라고 말했듯이 그는 자아(self)에 대한 개념을 동포애 정신으로까지 승화시켰다.

더 나아가 휘트먼은 한 개인의 신성함과 더불어 집단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나 자신의 노래」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

1) 본 논문에서 인용한 시는 존 코우웬호벤(John Kouwenhoven)(1950)이 편집한 휘트먼의 『풀잎과 산문 선집』(*Leaves of Grass and Selected Prose*)의 391 페이지에서 인용했으며, 이후 본서의 인용은 *LG*로 약칭하고 쪽수만 표기함.

인간의 자아를 나는 노래 부른다. 하나의 개개의 인간을,
그러면서도 나는 '민주적'이란 말, '대중과 함께'란 말을 발언한다.

ONE'S-SELF I sing, a simple separate person,
Yet utter the word Democratic, the word En-Masse. (*LG*, p. 3)

그는 단순한 개별적인 자아를 노래하되 "대중과 함께"라는 말도 피력한다. 그가 찬미하는 인간은 본연의 개체로서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대중속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개별적인 존재이며 공동체로서 민주적인 국가를 구축하는 대중과 더불어 사는 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중과 함께"란 말은 모든 구성원이 자애와 타애와 국가애를 기본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결합하는 힘은 언제나 일체감, 공감, 사랑과 우애이다.

이러한 자아의 주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중심주제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후 많은 지성인과 문인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되었던 미국의 독립과 화합의 민족문학 운동도 휘트먼의 시에서 기본정신과 동기가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문학과 민족 및 국가의 삼위 일체적 자각과 국민정신 계몽에의 정열로 승화되어 에머슨이 주도한 뉴잉글랜드 초월주의 운동을 역동적으로 실현시켰다. 한마디로, 이 운동은 유럽의 문화권에서 독립하여 미국문화 및 정치적인 제도를 연계하려는 새 시대 정신이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휘트먼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국적 개성과 국민의 자유 평등의 민주적 통일과 독립을 기초로 한 범 미국주의였으며 그의 시의 원초적인 추진력이 되었다.

휘트먼은 『풀잎』의 「서문」("Preface")에서 미국문학의 독립을 선언하고 초석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시 속에서 모든 개개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들의 권위와 의의를 찾아내어 새로운 형식의 인간세계를 묘사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개인의 신화와 인류의 동포애적 결속을 주장하였고, 모든 개인의 개별성, 만인의 평등과 상호 존중이 그의 시의 윤리적인 신념이며 동기가 되게 하였다. 마이어즈(H. A. Myers)(1987)는 휘트먼이 "정치적인 민주주의시인이고 사회적인 자유시인"이며 "새롭고 심오한 인생에 대한 해석을 내적이고 정신적인 민주주의를 통하여 자신의 문학의 세계에서 보여주었다"(p. 33)라고 말했다.

휘트먼은 시를 현실과 정치의식의 투영으로서 생각하며, 『풀잎』에서 미국 국민문학 운동과 구세계로부터의 독립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시의 개념도 자연히 새로운 것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시의 내용과 정신에서의 변화는 과감히 시 형식의 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부르짖고, 과거의 전통적인 시 형식을 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유시의 형식을 창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시는 전통적인 운율 형식에 자기의 생각과 호흡을 맞춘 것이 아니라, 시인의 내부에 용솟음치는 생명력의 맥박이 제한 없이 표현될 수 있는 자유로운 민주적인 형식을 취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권위를 주장한 것과 꼭 같이 시의 내용과 형식의 절대자유를 자신의 시에서 실천하였다.

휘트먼이 사용한 새로운 형식과 언어는 대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구실을 하여 그의 시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런 까닭에 과거의 시형식이나 채재로서는 맞지 않게 보이고 또 지나치게 산문적이라고 보이는 문체도 쉽사리 그의 시에서 이용될 수가 있었다. 그의 새로운 문체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던 까닭에 아직도 틀이 잡히지 않은 이 새 대륙의 풍토를 표현하기에 알맞았다. 또한 개척의 로망스와 활기며 무한한 장래를 약속하는 미국의 꿈과 민주정신이라는 혁명적인 이념을 형상화하기에 충분하였고, 그의 이러한 사상은 『풀잎』에서 새로운 문체로 잘 표현되어 있다.

휘트먼의 민주주의 정신은 주제적인 전개뿐만 아니라 그의 시집의 시적 소재 그리고 구조와 문체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작품에서 실천해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풀잎』의 대표적인 시 「나 자신의 노래」를 중심으로 몇 연의 시들을 열거하면서, 휘트먼이 시의 형식과 소재, 구조 그리고 문체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시에서 '민주주의 전망'(Democratic Vistas)이라는 명제를 탐색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시 형식의 민주주의

휘트먼의 시집은 그의 오랜 삶의 결실이고, 중대한 미국 역사의 반영이다. 일찍이 휘트먼이 "『풀잎』은 육체와 존재에 대한 노래들이다"(*LG*, p. 523)라고 말했듯이, 이 시집에는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구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책이 식물처럼 마음속에서 조금씩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버러우즈(John Burroughs)(1960)는 『월트 휘트먼에 대한 주석』(*Notes on Walt Whitman*)에서 『풀잎』에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고 일종의 성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9-10). 이것은 이 시집이 구조의 전개에 있어 본능적이고 한편으로 비논리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은 휘트먼의 『풀잎』이 잘 짜여진 형식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가 시를 쓴 것이 아니라, 혼돈스런 산문만 썼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밀러(J. E. Miller)(1957)와 같은 옹호자들은 휘트먼의 시 속에서 신중하게 질서를 찾았고, 내면적인 숨겨진 구조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p. 53). 더 나아가 트리그즈(Oscar L. Triggs)(1960)는 『풀잎』이 두드러진 건축적인 구성의 특질을 가졌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풀잎』은 두드러진 건축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건축가처럼 저자는 계획을 세웠고, 성당의 목재처럼 그의 시는 서서히 쌓아 올려졌다. 각각의 시는 디자인 되어졌고 이상적인 조직 속에서 제 위치를 찾도록 씌어졌다. (p. 12)

그러나 휘트먼에게는 처음부터 구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거기에는 단지 유기적이고 주제적인 구조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그는 참신하게 자신의 민주적이고 우주적인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신세계를 향해 출발했다. 그는 19세기의 이상적인 미국사회를 그리면서 미국 민주주의를 향하여 추구해 나갔다. 『풀잎』은 주로 지성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혼란스러움과 빠른 성장, 19세기의 전반적인 경향과 사건,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 대한 시대정신(Zeitgeist)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시는 두 가지의 다른 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천천히 형성되었다. 그 하나는 본능적인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주제적인 구조(thematic structure)이다. 휘트먼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싹(germination)을 자신의 시에서 "보이지 않는 발아"(unseen buds)라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상, 1855년 초판 『풀잎』은 이질적이고 오히려 빈약한 구조를 가진 책이었다. 이 시집의 진정한 구조는 원칙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건축적이고 기하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음악적인 발전을 지녔다. 이러한 음악적인 구조의 특성에 대하여 밀러(1964)는 "『풀잎』은 광시곡이나 음유시와 같이 주제가 변주되지만 전체가 심포니처럼 결합되어 있다"(p. 170)고 주장했다. 최근에 『월트 휘트먼과 오페라』(*Walt Whitman and Opera*)에서 화너(Robert D. Faner)(1980)는 『풀잎』을 또 다른 중요한 음악 형태와의 연관성을 추적하였다. 즉 "오페라의 아리아가 그의 시의 형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의 시에는 많은 음악적인 메타포가 있으며 여행의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170)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휘트먼은 『풀잎』을 책이 아니라 "사람"(a man)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은 그의 시집이 어떤 시적인 구조를 가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한 인간 혹은 하나의 나무가 성장해 나가듯이 자신의 메시지인 민주주의 사상의 추구를 독자에게 표현해 나가는 주제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풀잎』의 중요한 주제적인 패턴의 전개 과정을 추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풀잎』에는 38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으나, 어떤 면으로는 시집 전체를 단일한 시로 볼 수도 있다. 하나의 나무가 자라듯이, 혹은 하나의 숲이 완성되듯이 약 30년간에 걸쳐 『풀잎』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가 완성된 것이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평생 동안 쓴 여러 작품을 모아 시집 혹은 시 전집이라고 내는 경우와는 달리 『풀잎』은 그 주제가 비교적 단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4편의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 추모

시처럼 주제를 약간 달리하는 시가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정신의 추구'라는 큰 주제로 보았을 때 그 어느 시편이나 사실상 동일주제의 변주곡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풀잎』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주제란 무엇인가? 휘트먼은 자신의 시집이 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작품의도에 대한 그 자신의 분명한 언급이며, 그가 『풀잎』에서 결국 인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자신의 노래」의 첫머리에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LG*, p. 28)라는 시를 싣고 있는 것도 이 시집 전체의 주제를 천명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그가 말하는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이며 동시에 "대중과 함께"라는 말로 표현되는 민주적인 인간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미국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나 자신의 노래」에서의 민주주의 실천

휘트먼의 모든 시는 『풀잎』이라는 제목의 한권의 시집 속에 포함되는데, 그 시집 중에서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시가 바로 「나 자신의 노래」이다. 그에게 있어 개인은 곧 우주이고 신이고, 개인은 무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엄하고 신비로운 존재이다. 시인의 최대 장시이며 최고 걸작인 이 시는 존엄한 인간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찬가이며,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에 대한 극적인 묘사이다. 여기서 극적인 묘사라는 용어는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신비적인 경험이 하나의 상상력 속에서 극적으로 묘사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밀러(1964)도 이 시를 내적인 신비적 체험의 극적인 묘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시는 신비적 상태의 입문, 자아의 깨우침, 자아의 순화, 영혼의 사랑과 신념의 합일, 인지, 신비적 상태로부터의 탈출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p. 7).

이 시는 전체 52부로 되어 있는 장시이지만 각 시편은 사실상 독립된 개별적인 시로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제적인 구조의 분석에 맞추어 중요한 몇 연을 중심으로 휘트먼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아의 신비스런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나 자신의 노래」의 제 1연에서 휘트먼이 예찬하는 나 자신은 스스로까지도 포함하는 인류 그 자체이다. 그가 예찬하는 인간은 사회적인 계층이나 빈부의 차이를 벗어난, 그리고 종파와 학파의 구별도 없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평등하고 존엄한 민주적인 한 인간이다.

나는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하노라
내가 취하는 바는 그대도 취하리라
내게 속한 모든 원자는 그대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으니,
이제 완전한 건강을 누리는 삼십 칠세의 나는 시작이다

죽기까지 멈추지 않으려 하며.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For every atom belonging to me as good belongs to you
I, now thirty-seven years old in perfect health begin,
Hoping to cease not till death. (*LG*, p. 23-24)

휘트먼은 인간은 본래 평등하고 자유롭고, 생명은 영원하고 본성은 선한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한 신과 같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그것을 아주 낙천적으로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있다. 그가 이 시를 쓴 것은 37세 때인데, 그는 "완전한 건강"(perfect health)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인간찬가를 부르겠다며 민주적인 완전한 한 인간의 탄생을 선언했다.

그러한 인간의 영혼은 제 5연에서 풀밭에서 빈둥거리도록 초대되어 진다. 여기에서 "투명한 여름 아침"이란 말은 휘트먼 자아의 정신적인 깨우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밀러(1964)는 이것을 그가 "신비스런 의식의 상태"(p. 9)로 입문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어느 투명한 여름 아침 우리는 누워 있었지
나는 안다 신의 손은 내 손의 약속임을.
나는 안다 신의 마음은 내 마음과 형제임을.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이 역시 내 형제요, 여인들은
내 누이요 애인임을,
창조의 내용물은 사랑임을.

I mind how once we lay such a transparent summer morning
And I know that the hand of God is the promise of my own.
And I know that the spirit of God is the brother of my own.
And that all the men ever born are also my brothers, and my
sisters and lovers,
And that a kelson of the creation is love. (*LG*, p. 27)

휘트먼은 "모든 태어나는 이가 형제요, 누이요, 애인임을 안다"고 노래한다. 이는 그가 미국을 인간과 자연의 원리로 가장 드높게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형제애로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미국사회의 모든 인간들이 민주적, 영적 유대로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결속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개인의 독립성에 바탕을 둔 종족과 계급을 초월한 형제와 자매의 신성한 사랑의 결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과 우애의 결속이 바로 민주

주의 정신이다.

제 6연에서는 휘트먼의 놀랄만한 전이가 일어난다. 한 아이가 두 손에 풀을 가득 가져오면서 "풀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이때에 풀의 중심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풀은 바로 평범한 것들의 기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신성함(평등과 영원성을 가진)을 나타내는 범신론적인 민주정신의 중요한 상징이다. 또한 풀잎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며 동시에 대중과 더불어 있는 민주사회의 일원임을 상징한다. 이런 인간이 민주세계의 주체가 됨을 표명하고 있다.

휘트먼은 제 7연에서 "나는 모자와 구두 사이에 간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모자와 구두 사이에 간혀 있는" 편협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상을 음미하는 인물임을 말해준다. 그는 스스로 민중의 벗이 되고 그들이 불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그의 민주적인 평등사상과 초월주의 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 10연에서 휘트먼은 수확 철에 농가와 사냥터에서, 그리고 야외에서의 아무것에도 구애됨이 없는 자유롭고 자족한 생활의 이모저모를 노래한다. 그는 농부나 어부나 사냥꾼들이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원초적인 생활을 찬미한다.

휘트먼이 그리고 있는 자아의 모습은 도시적이고 인위적으로 세련된 인간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과 밀착된 원초적인 인간상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의 생활과 그들과 일체화되어 함께 호흡하는 싱싱한 자연인을 묘사하고 있다. 거기에는 기계공이 있고, 선원이 있고, 사냥꾼이 있고, 어부가 있고, 농부가 있고, 병사가 있고, 구두공이 있다. 이들이 바로 민주사회에서의 민중의 일원이 된다. 그는 워즈워드(Wordsworth)와 마찬가지로 범신론적 우주관에서 인간과 자연을 신성시하고 그 영원불멸을 믿고 계급과 신분의 차이도 없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찬미한다.

휘트먼은 제 15연에서 아름다운 콘트랄토 가수로부터 미치광이, 마약환자와 창부, 평범한 선원에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카탈로그 기법에 의해 민주국가의 일원들인 민중들의 모습으로 또다시 묘사하고 있다.

기계공은 셔츠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경관은 자기 순찰구역을 순찰하고,
문지기는 통행인을 주목한다.
젊은 녀석이 화물운반차를 몰고 (그를 모르지만 나는 그가 좋다),
혼혈아가 경주에 나가기 위하여 운동화의 끈을 조른다.

The machinist rolls up his sleeves, the policeman travels his beat,
the gate-keeper marks who pass,
The young fellow drives the express-wagon. (I love him, though
I do not know him;)
The half-breed straps on his light boots to compete in the race. (*LG*, p. 35)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휘트먼의 인물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명상하는 시적인 인물이

아니라, 현실에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야성적인 자연인이다. 그 배경이 되는 자연은 추상화된 관념의 자연이 아닌 생활의 현장이고 환경이다. 또한 휘트먼의 인간은 개인이지만 대중속의 개인, 대중과 함께 있는 개인이다. 이것은 『풀잎』의 첫 부분에서 그가 부르짖는 완벽한 민주시민의 표상이다. 이러한 시민은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인간이 아닌 사회속의 인간이며 남과 더불어 생활하는 현실의 인간이다. 한마디로 이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 평민들의 삶은 19세기 중엽 미국의 생활 풍속도이다. 그는 활기에 넘치는 이 생동하는 대중의 세계를 외경스런 눈으로 바라보며 대중과 더불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그가 철저하게 민주시민임을 자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 16연에서 휘트먼은 높거나 낮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신성한 것이나 타락한 것이나 관계없이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하고 더 나아가 모든 미국을 포함하기 위하여 팽창한다. 자아의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타당성에 대한 자각이다. 민주적인 경험의 첫 단계에 있어서, 그는 타인들을 향한 애민정신의 깨우침과 민주정신의 전파라는 자아의 임무의 타당성에 대한 순수한 자신감을 성취했다. 자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 혹은 임무에 대한 이런 깨우침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자아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민주주의 정신의 추구'라는 "주제의 교향악적인 취급"(Miller, 1957, p. 16)은 신비적인 경험에 의해 부여된 극적인 상태에서 휘트먼의 삶의 체험을 기저로 하여 더욱 정당화된다. 비평가들이 휘트먼의 사상은 독창적인 지속성이 부족하고 통일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연이 제 21연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만물에 대한 평등사상이란 정신이 다시 소개되면서 '민주주의 사상의 전파'라는 교향악적인 주제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 나는 육체를 노래하는 시인이고, 영혼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 천국의 기쁨이 나와 함께 있고, 지옥의 고통이 나와 함께 있다.
> 나는 여성을 노래하는 시인이며 똑같이 남성을 노래하는 시인이다,
> 그리고, 나는 말한다, 여자가 되는 것이 위대한 것과 같이 남자가 되는 것도 위대하다고,
> 그리고 인간의 어머니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
> I am the poet of the Body and I am the poet of the Soul,
> The pleasures of heaven are with me and the pains of hell are with me,
> I am the poet of the woman the same as the man,
> And I say it is as great to be a woman as to be a man,
> And I say there is nothing greater than the mother of men. (*LG* 40)

그는 여기에서 정신은 고상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지 않고, 그 양자가 결합되었을

때의 신비로운 체험을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기쁨이라고 노래한다. 그는 육체와 영혼은 물론, 천국과 지옥, 여성과 남성 등 상반 대립되는 만물이 자아 속에서 융합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언급한다. 또한 그는 자연만물의 본질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부르짖는다. 이러한 평등에 대한 신념은 그가 모든 만물은 죽음이 없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도 같다. 이러한 범신론적 평등사상은 그의 민주주의 정신이 초월주의자들에게서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초월주의자들에게는 모든 만물에 영혼이 있고 신성하며 끊임없이 대령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휘트먼의 민주정신의 핵심인 평등사상이 비롯되었다.

제 31연에서 풀잎의 이미지가 다시 소개된다. 풀잎은 무의미한 사소한 존재이지만, 시인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주는 상징이다. 그는 가장 미약하고 일상적인 대상에서 기적을 발견한다. 이것은 또한 국민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밀러(1954)는 이 풀의 이미지가 "평등"(p. 15)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휘트먼은 풀 이외에도 자연만물의 어떠한 미물도 그것이 모두 기적같이 신비롭다고 노래한다. 그는 한 마리의 개미나 땅에 뻗은 딸기 덩굴 같은 하찮은 것도 그것이 인간문명의 산물들 보다 걸작이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자신이 진화 발전하여 다른 생물들 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으로써 그의 민주주의 정신은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산천초목의 자연과 짐승과 벌레의 세계에까지 확대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연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그대로 취해온 것이며, 자연 그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삶의 상징물들이다. 특히 자주 등장되는 풀의 이미지는 민주적인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잘 나태내주고 있다. 따라서 그가 자연에서 민주정신의 규범을 찾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연은 인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객관적 존재로서 보다는 그의 주관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이들 자연물은 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하여 인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는 미국의 풀과 나무와 같은 자연에서 인간 상호 관계를 지각하고 죽음의 현상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화함으로써 인간 결속의 의미를 도출했다. 또한 자연세계의 법칙에서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의 원리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찾아내었다.

휘트먼은 이러한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을 모든 살아있거나 그렇지 않은 대상과 동일시한다. 그는 여전히 동물을 예찬한다. 동물은 인간들이 갈망하는 미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것들은 의무감이나 소유욕에 시달리지 않고, 죄의식도 없이 마음이 태평하고 항시 자족한다. 인간이나 자연만물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신성하고 존귀하다는 생각에서 자연을 대하면 풀잎 하나에서도 모래알 하나에서도 신의 정령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초월주의의 중심사상인 대령의 영향으로 그가 "직관적이거나 초월적인 자아"(Underhill, 1926, p. 289)를 발견한 것으로 바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인 평등사상과 인권에 대한 사상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자연의 반복적인 등장은 그가 요구하는 완전한 민주적 삶의 양상을 동식물들의 자연적 존재양식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자연 질서의 상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에 순종해야 된다고 보았다.

제 38-40연에서 휘트먼은 "평화로운 기쁨"과 "강한 확실성"으로 가득 차고 "강렬한 힘"을 부여 받는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Miller, 1857, p. 25)의 여러 이미지를 통하여 초월적인 것과 일체됨을 제시한다. 요컨대, 그는 초월적인 것과 통합된 완전한 통찰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휘트먼의 "예수와 유대의 오래된 언덕을 걷는 것"과 그의 초월적인 것과의 합병은 곧 바로 자아와 그리스도의 동일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죽음과 무의미한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온 것처럼 그의 어두운 밤은 "시체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재생된 활력과 삶을 가져온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의 통합을 통하여 그는 갑자기 수동적인 고통 받는 자로부터 "지상위에 즉각적인 성찬식"을 베푸는 보통사람들의 대변인이며 민주정신의 옹호자가 된다.

마침내 휘트먼은 "친절하고 유창한 자연인(savage)"으로 나타나며 예수와 같은 인물이 된다. 그의 행동은 "눈송이처럼 자연스러우며" 그의 말은 "풀처럼 단순"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평범한 언어로 전달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것과 신성한 것에 대한 표현은 그의 시를 통하여 중요한 민주주의 정신으로 전환된다. 그에게 있어 시인, 그리스도, 그리고 자연인은 모두가 평등하고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 된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종교와 사랑과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비록 그의 민주주의 정신의 원리는 영적이지만, 그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룩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건설에 더욱 관심이 있다.

제 42연에서는 바로 신비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다. "나"는 "자연인 예수(Christ-savage)"로서의 시인이 되며 시인은 자신을 연설가로서 상상한다. 아마도 "산상에서 설교하는 예수"(Miller, 1957, P. 27)와 같은 인물처럼 그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

나의 아이들아 오라,
나의 소년 소녀들, 나의 여성들, 가족들, 친구들아 오라,
역사 속에 있는 성인과 현자들—그러나 당신 자신은?
설교, 교의, 신학—불가해한 인간의 두뇌,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삶은 무엇인가?

Come my children,
Come my boys and girls, my women, household and intimates,
The saints and sages in history—but you yourself?
Sermons, creeds, theology—but the fathomless human brain,
And what is reason? and what is love? and what is life? (*LG*, P. 64-65)

휘트먼에게 있어 신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초월하는 영원불사의 존재도 아니며, 인간 혹은 자연물 그 자체가 신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정한 형제이고 친구이다. 성경이나 종교 같은 신성한 것도 결국은 절대적이 못되며, 자연신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결국, 휘트먼의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과 인간평등사상과 이를 기초로 한 개인과 사회의 완성으로 지향하는 종교적인 민주정신이다. 그가 자신의 민주주의 정신관을 피력한 산문인 「민주주의 전망」에서 그는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에 종교적인 요소가 있다"(*LG*, p. 477)라고 종교적 신앙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핵심부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단지 민주정신의 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민주정신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

「나 자신의 노래」의 마지막 두 연인 제 50-52연에서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신비적 경험의 고뇌와 황홀경을 보여준다. 시인은 긴박하게 자신의 놀랄만한 새로운 통찰력의 수용을 위한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는 나 자신을 흙에 양도한다 내가 사랑하는 풀에서 자라게끔,
나를 또 보고 싶으면 그대의 구두창 밑을 살펴라.

그대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뜻하는 바를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건강을 도울 것이다,
그대의 피를 걸러 주고 힘있게 해줄 것이다.

처음에 못 만나더라도 계속 힘을 내라
한 곳에 없으면 딴 곳을 찾아라
어딘가 멈추어 그대를 기다린다.

I bequeath myself to the dirt to grow from the grass I love,
If you want me again look for me under your boot soles.

You will hardly know who I am or what I mean,
But I shall be good health to you nevertheless,
And filter and fibre your blood.

Failing to fetch me at first keep encouraged,
Missing me one place search another,
I stop somewhere waiting for you. (*LG* 75)

그는 자아신뢰(self-reliance)의 중요성, 즉 실제로 "자신에 내재해 있는 초월적인 것에

순종"(Miller, 1964, p. 34)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자신을 풀잎이 자라는 땅에 양도할 때, 그는 독자를 사랑하고 신뢰한다. "나를 또 보고 싶으면 그대의 구두창 밑을 살펴라"고 시인은 시의 중심 상징인 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풀잎』의 서두 부분에서 풀잎에 대한 명상이 시인으로 하여금 미지의 것(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의 탐구와 전파여행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휘트먼은 마침내 이 여행을 완료한 후에 스스로 풀(민주정신)이 성장하도록 한줌의 흙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로써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평범한 진리가 실현됨으로써 긴 '민주주의 전망'이라는 순례 여행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 3. 소재 선택의 민주주의

휘트먼은 유유자적하는 자연인을 특히 사랑했고 그 자신 스스로 빈둥대는 사람임을 자부한다. 또한, 세상일에 얽매임이 없이 왕성한 육체의 욕망에 따라 마음껏 먹고 떠들어 대고 생산하는 자유인이 곧 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인물들은 지극히 사귀기 쉽고 어디서나 발견되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풀잎』에는 이러한 평범인의 건강한 생활과 그들과 일체화되어 함께 호흡하는 싱싱한 자연인이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는 기계공이 있고 선원이 있고 사냥꾼이 있고 어부가 있고 농부가 있고 병사가 있고 구두공이 있다. 그는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라는 시에서 평범한 미국인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 가지각색의 즐거운 노래를 듣는다,
기계공들의 노래, 누구나 자기의 노래를, 쾌활하고 힘차게,
목수는 널판이나 대들보를 재면서 자기의 노래를 부른다,
엄마나 일하는 젊은 아내의, 또는 바느질하고 빨리하는
아가씨의 달콤한 노래,

I HEAR America singing, varied carols I hear,
Those of mechanics, each one singing his as it should be blithe and strong,
The carpenter singing his as he measures his plank or beam,
The mason singing as he makes ready for work, or leaves off work,
The delicious of the mother, or of the young wife at work,
or of the girl sewing or washing. (*LG*, p. 11)

여기에 나열된 수많은 직업인들은 모두 자기의 일에 전념하면서, 자기의 일과 환경에 만족하는 미국인상이다. 휘트먼은 개개의 인간을 그들의 직업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처한 조건에 의하여 구분하지 않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을 자연과 같은 생명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그들에게

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각기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개인들은 바로 아담의 자식들이며 그는 그들의 노래를 통하여 미국의 꿈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미국의 생활풍속도이다. 그는 활기에 넘치는 이 생동하는 대중의 세계를 외경스런 눈으로 바라보며 그 대중과 더불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철저한 민주시민이며 내게 속하는 일체의 원자는 네게도 속한다고 믿는 평등사상의 신봉자이다. 그는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둥이와 흰둥이를 구별하지 않았고 캐나다인과 버지니아인, 국회의원과 흑인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적 소재의 자유를 통하여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인 자유와 다양성을 찬미했다. 『풀잎』는 이러한 소재의 다양성과 더불어 바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황홀한 찬가라 할 수 있다.

휘트먼은 다양한 대상을 음미하고 지구나 별 그리고 그들의 부속물인 모두를 음미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무한한 공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임을 암시한다. 그가 자신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한 대상의 범위는 실로 무제한적이다. 별로 존재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부터 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다양하고도 무한하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존재로 여기면서 무한한 우주의 진화론적 차원에서 모든 것이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풀잎 하나, 개미 한 마리, 모래알 하나, 굴뚝새의 알 하나하나가 제각기 완벽하게 존재하며 청개구리, 딸기 넝쿨, 작은 손 매듭, 새앙쥐 등이 시적 소재로 모두 찬양받고 더 높은 존재의 형태로 계속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제 41연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에게 목공수, 소방수, 기계공의 아내, 농부, 주막집 주인 등도 시적 소재로 사소한 존재들일 수가 없음은 자명하다.

브래들리(Bradley)(1962)가 『풀잎』의 「편집자 주석」(Editor's Notes)에서 "민주적인 개인의 위엄과 잠재력"(p. 599)을 주제로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 「할말들」("Says")에서도 역시, 가장 미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고귀한 사람만큼 귀중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나타난다. 휘트먼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자유속의 평등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나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특성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다;
> 나는 지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도 그 자신과 그녀 자신에게는
>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신성하다, 가장 진보된 사람이 그 자신과
> 그녀 자신에게는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신성한 것처럼.
>
> I say man shall not hold property in man;
> I say the least developed person on earth is just important and
> sacred to himself or herself, as the most developed person
> is to himself or himself. (*LG*, p. 599)

그는 누구든지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되며 생김새나 건강, 신분, 기질, 학력의 여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가치 자체는 경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인간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이든 어른이든, 어느 곳에서 든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차별 없이 남녀가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이것은 눈에 보이거나 돌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실체인 영혼이다. 그는 인간은 영혼의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더 없이 지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이룰 때에도 인간 본연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창조코자 했던 것이다.

휘트먼이 현대성을 가진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금기시해 오던 성을 택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의 평등을 주장하고 거리낌 없이 시적 소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찬양한데 있을 것이다. 그는 『풀잎』의 처음부터 여성을 배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나는 남성과 똑같이 여성을 노래한다"(*LG*, p. 3)라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찬양한다고 「나 자신의 노래」의 처음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요컨대, 여성과 남성의 완벽한 평등관계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시인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다. 에머슨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미국의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타고난 평등을 지켜야 할 시대에 접어들었으므로 서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성은 남성들 사이에서 조차도 본질적인 평등관계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Bradley, 1962, p. 739). 따라서 그의 시는 육체와 영혼을 시작으로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의 상호균형을 보여주듯이 여성과 남성 역시 대등한 인격체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난다.

그의 시가 무수한 찬반양론의 비평을 받아온 것은 무엇보다 그의 시의 주제와 다양한 소재, 그리고 형식면에서 전래의 것으로부터 과감히 개혁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시의 소재에 있어서도 기존에 거의 무시당해온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에게 존엄성과 생명성과 실체를 부여해 주었다. 특히 휘트먼은 자아를 중심으로 시를 써나아갔는데, 이는 그가 인간자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인간에게 신과 동등한 수준까지 신의 속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정통 기독교의 반발을 사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그의 시가 심한 반발을 산 원인은 이성애는 물론 동성애와 같은 당시에 금기시되던 소재와 주제를 언급하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 형식면에서도 많은 반발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의 시에 형식이 결핍되어 있고 리듬이 비 인습적이며 문체가 조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종래의 관습을 거역하는 새로운 서사시적 자유시를 사용하여 시의 해방을 주장하는 자유시의 선봉자가 되었다. 요약컨대, 그의 시의 세련미 없는 야성적 스타일, 다양하고 잡다한 만물상 같은 생활상의 묘사, 속어와 비어 등 단순한 일상용어의 대담한 사용, 그리고 되풀이 나열되면서도 권태를 모르고 전진하는 대행진과 같은 리듬 속에서 그의 시는 나무처럼 가지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 Ⅲ. 결 론

휘트먼의 민주정신은 문화, 종교, 문학,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독립과 민중의 자유, 평등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그가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지식에다 초월주의 영향을 접목시켜 우주론적이고 민족적인 민주주의 정신과 예술을 『풀잎』을 통하여 창조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휘트먼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평등과 자유와 창조의 정신이다.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은 개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는 대규모의 민주정신 사회가 가능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에서는 자립정신을 가진 개개의 시민이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민주정신의 자유와 창조를 펼칠 수 있고 위대한 시를 위한 다양한 소재를 가진 땅이 바로 미국이라며 "미국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장 위대한 시이다"(*LG*, p. 441)라고 그는 노래한다.

더욱이 휘트먼은 국가와 시의 일치점은 양자가 동일한 민주주의의 성숙한 세계를 보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곧 그가 「민주주의 전망」에서 말한 대로 국민문학과 자신의 시학의 기본 정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한 생명력을 지닌 국가상과 시의 일체화를 선언했다.

> 우리는 우리의 국가인 미국이 인간 역사상 가장 심오한 근본의 요소와 지고한 의미가 내재된 형태 또는 발산과 진술로써 표현된 문학이요 심미적 존재임을 인식한다. 즉 미국이란 우리 자신의 인상의 자화상(미의 영원한 법칙과 조건을 갖춘)이요, 우리들의 조화, 지속, 관점에서 반영된 주체적 동맹과 객관적 표현이다. 또 미국은 민족적 정신과 개성, 염원, 영웅심, 전쟁, 심지어 자유의 보고요 기록으로서 영원히 보전키 위해 토착적 문학과 예술의 서술도 절정화 되는 것이다. (*LG*, p. 515-516)

휘트먼은 미국을 인간 역사상 가장 심오한 근본의 요소와 지고한 의미가 내재된 형태로서 표현된 문학으로 인식한다. 요컨대, 미국이란 우리들의 자화상이며 우리들이 가진 민주주의 정신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휘트먼은 『풀잎』의 초판에서 자기 시대의 국가의 이상적 자아상을 상징화한 시를 「나 자신의 노래」라고 불렀다. 이 시에서 우주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탐색하는 가장 지배적인 사상과 시적 대상은 자아였고, 자아의 발견과정이 곧 그의 예술 창조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자기의 이상과 현실을 극화한 자서전적이고 고백적인 자기표현의 상징적인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우주와 자연에 상응된 자아를 탐색하였고 현실세계와 민중 속에서 자유와 평화 및 자주독립을 쟁취하여 민주국가를 창건하려는 민족, 민주 및 민중시인으로서의 자아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자아에 대한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우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아로서 우주의 신성함속에 내재된 자아이다.

휘트먼의 시는 그 자신의 충동적이고 다양한 인성과 아울러 자유스럽고 무절제하며 비전통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풀잎』의 전개에 있어 비논리적이고 본능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민주주의 정신의 전개라는 형식의 자유와 함께 주제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의 두드러진 형식은 1인칭 등장인물과 목록나열의 사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1인칭 등장인물은 완전한 자아와 개인의 보편성과 존엄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목록나열 수법은 바로 대중과 함께 라는 평등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시적기교이다. 이러한 수법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체로서의 인간과 동시에 집단체로서의 인간이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요컨대, 다양성 안의 통일성(a unity in diversity)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양한 민족들의 집합체인 미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질중의 하나이다.

스필러(R. Spiller)(1955)는 휘트먼과 에머슨을 19세기 미국 문예부흥의 대표적인 작가로 취급하면서, 휘트먼이 구시대의 문학사상을 벗어나 "미국 문학사의 새로운 이정표"(p. 159)를 구축했다고 보았다. 이것은 휘트먼이 전통과는 달리 자유형식 아래 개성주의, 도덕, 자유와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토대로 미국문학 전체의 지성화와 도덕화를 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 및 국가의 총화를 추구함으로써 미국문학사의 초석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휘트먼은 독특한 자기방식의 미국적 보편적 인간과 우주만물의 평등이 핵심이 되는 민주주의 사상을 표현했다. 결국, 그는 다양한 소재에 대해 카탈로그 기법에 의한 배열과 1인칭 등장인물(persona)의 힘찬 자유시형(free verse)으로 구성된 형식을 통하여 예언자적이고 대변자적인 '민주주의 전망'(Democratic Vistas)이라는 비전을 자신의 시 속에서 설교하며 실천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사상과 문학을 미국문학사에 새로운 좌표로 구축시켜 놓았다.

## 참 고 문 헌


Allen, G. W. (1975). *The new Walt Whitman handbook.*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_____. (1961). *Walt Whitman as man, poet and legen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_____. (1985). *The solitary singer: A critical biography of Walt Whit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sselineau, Roger. (1960). *The evolution of Walt Whitman: The creation of a person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oller, Paul F., Jr. (1974). *American transcendentalism, 1830-1860.* New York: G. P. Putnam's Sons.

Carlisle, E. Fred. (1973). *The uncertain self: Whitman's drama of identity.*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Loving, Jerome. (1982). *Emerson, Whitman, and the american muse.* Chapel Hill and Lond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Miller, James E., Jr. (1957). *A critical guide to leaves of gr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Ed.). (1964). *Song of myself: Origin, growth, meaning.* New York: Dodd, Mead.

Myers, Henry Alonzo. (1987). Whitman's conception of the spiritual democracy," In Edwin H. Cady & Louis J. Budd. Durham (Eds.), *On Whitman: The best from American literature.* Duke University Press.

Pearce, Roy Harvey. (Ed.), (1962). *Whitma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Spiller, R. E. (1955).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An essay in historical criticism.* New York: Macmillan.

_____. (1977). *Milestones in American literary history.* London: Greenwood Press.

Waggoner, Hyatt H. (1968).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Boston: Houghton Mifflin.

Bradley, Sculley & Blodgett, Harold W. (Eds.), (1973). *Leaves of grass.* A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Norton.

Kouwenhoven, John (Ed.), (1950) *Leaves of grass and selected prose.* New York: Random Hous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양 현 철
충남 천안시 쌍용동 나사렛대학교 영미문화영어학과
Tel: (041) 570-7966
E-mail: hcyang@kornu.ac.kr

Received in Sept., 2003
Reviewed in Oct.,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 2003